

이건희 회장 주식 가치 18조...지분 상속 때도 큰 변화 없을 듯

총수 이재용 시대...삼성 지배 구조 어떻게 되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게 됐다. 이 회장 별세 이후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회장의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성을 이끌어 왔고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삼성 방산·화학 계열사 매각, 미국 전자기업 하만 인수 등을 통해 본인의 색을 드러내며 변화를 꾀해왔다.

각종 수사·재판을 받으면서도 한달에 한번 꼴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도 5월 중국 반

2018년 공정위 동일인 지정
이재용 부회장 공식 총수 올라
상속세 10조원 이상 예측
세금 분할납부 방식 유력
여당 추진 보험업법 개정 주목

도체 공장에 다녀왔고, 최근에도 네덜란드와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 회장 외병과 삼성 관련 수사·재판 리스크로 '이재용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이 부회장은 앞으로 본인이 주도하는 '뉴삼성'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도록 주력할 전망이다.



당장 경영권 승계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지배구조 재편 등이 이 부회장이 마

주한 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 지배구조 변화도 관심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지난 23일 증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으로,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해 10조60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전문학적인 세금을 부담하고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할 지 결정해야 한다.

세금을 분할 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의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이라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과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맞물리며 삼성의 지배구조가 개편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5월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 회견을 통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4억주, 가치는 20조원 상당일 전망이다.

또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주식 57.25%, 이중 이 부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보험업법에 따라 상당한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재개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휘발유값 9주째 하락

광주·전남지역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보통휘발유 1당 가격은 광주 1304.3원·전남 1333.5원으로, 지난 달 2일 이후 9주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난 달 1일 1339원하던 광주 휘발유값은 이틀날 1337원으로 내려간 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남지역도 9월 1일 1356원에서 같은 달 2일 1355원으로 떨어진 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기준 경유 가격은 광주 1105원·전남 1136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0.4원 하락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을엔 '차박' 즐기세요. 25일 롯데아웃렛 광주월드컵점 직원들이 차를 이용해 즐기는 캠핑 '차박' 관련 상품들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있다. 이 점포는 캠핑카부터 식탁, 의자 등 관련 상품을 선보이며 사진 촬영 공간도 제공한다. <롯데쇼핑 제공>

광산업진흥회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로 수출 길 뚫는다

167건 상담, 282만달러 계약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을 통해 167건의 수출상담과 282만 달러의 수출 계약 실적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진흥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광융합산업체 기업의 수출 활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을 구축,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 49개사가 참여해 167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고, 총 282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이밖에 진흥회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1석 2조 비대면 지원책'을 제공해 '수출 컨설팅'과 실질적인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물류비', '인택트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 홍보체계 구축', '시제품 제작 및 수출보험료 지원' 등도 펼치고 있다.

한편 진흥회는 오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를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전환해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회는 광융합산업 기업 120개사가 참가, 유망 해외 바이어 15개국 120여명이 참가해 400여의 매출 계약이 목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지역상생·밀착경영 통했다

6년만에 순천시 2급고 탈환
광주·전남 1·2급고 23개 담당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올해 공공급고를 잇따라 유치하며 지역사회환원에 집중한 결실을 맺고 있다.

2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순천시 1·2급고에 각각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선정됐다. 시급고 약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3년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4년 하나은행에 2

급고를 내준 뒤 6년 만에 이 자리를 탈환했다. 앞으로 1479억원 규모 순천시 공기업 특별회계를 담당하게 된다.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시 1급고와 전남도 2급고를 수성하는 등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1급고 6개, 2급고 16개(순천시 제외) 급고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번 급고 유치전에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기여, 급고업무 관리능력, 이용편의성 등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많은 6

개 영업점을 순천에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순천법조타운지점 등을 신설해 점포수를 늘리며 순천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순천지역 수신 규모(4380억원)를 크게 웃도는 6629억원을 대출하며 지역 내 자금순환을 도모했다.

올해 상반기 순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신규 대출지원'은 416건 174억원에 달했다.

최근 10년 동안(2010년~2020년 6월) 순천지역 서민금융지원 규모는 487건 68억원이었고, 지난 7월 기준 순천시 소상공

인자금 이차보전대출은 181건 51억원이 시행됐다. 순천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대출'도 같은 기간 10건 24억원 상당 이뤄졌다.

순천 인재육성 장학금과 대학발전기금 등 순천지역 발전을 위한 후원금이 총 19억원에 달하는 등 광주은행은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순천시를 비롯한 우리지역 급고지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민과 동행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조달청 등 4개기관, 기업 공공조달 진출 돕는다

광주지방조달청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이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함께 돕기로 했다.

광주조달청은 지난 23일 북구 오흥동 청사 회의실에서 이들 기관과 '광주·전남 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같은 내용의 협약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체결했다. 해당 기관들은 우수한 창업·벤처 기업 상품과 혁신시제품을 발굴하고 이들의 '벤처나라' 등록,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지원 등을 맡아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934 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3 30 33 36 39	1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5,765,772,844 4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58,240,130 66
3	5개 숫자 일치	1,629,440 2,359
4	4개 숫자 일치	50,000 116,726
5	3개 숫자 일치	5,000 1,985,417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저자 이진

이진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